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	
		배포일자	2023년 1월 19일(목) 총 2매		
담당 부서	국제평화 협력담당관실	담당자	• 중국교류팀장 • 담당자	김은진 유혜진	☎440-3231 ☎440-3247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16시 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30년 우정 중국 텐진시, 양빙 부시장 인천시 방문

- 인천시,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통해 양 도시간 우호관계 강화할 것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19일 중국 텐진시 양빙(楊兵) 부시장 일행이 인천시청을 방문, 인천시 박덕수 행정부시장을 예방하고 양 도시간 우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.

인천과 텐진은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12월 7일 자매 결연을 맺었다. 양 도시는 개항도시, 환황해권 물류중심지, 자유무역구 등 지리적·역사적으로 닮은 점이 많은 도시로, 항만, 물류, 문화, 학술, 자유무역구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 왔다.

양 도시는 올해가 자매결연 30주년이 되는 해로 그 동안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교류관계를 회복할 계획이다. 국제행사 도시대표단 초청, 청년·청소년 세대 교류 프로그램, 교육청 연계 교사·학교 간 교류 지원 등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, 양 도시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.

텐진시는 중국 4대 직할시로 세계 10대 항구도시이자, 중국 북부지역

최대 항만물류 허브 도시다. 최근에는 주요 경제개발구인 빈하이신구(滨海新区)를 중심으로 첨단장비, 신에너지, 항공우주, 신소재, 의료바이오 등 제조업에서 점차 첨단산업분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.

양빙 부시장은 “코로나19 펜데믹으로 5년여만에 인천을 방문했지만 환영해 주셔서 감사” 하라며 “텐진시와 인천시는 수도권 관문도시이자 물류거점도시로 양 도시간의 다방면에서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.” 고 말했다.

이에 박덕수 부시장은 “인천시의 정책과 부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기대” 한다면 “특히 올해는 자매결연 3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다양한 국제행사를 통해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” 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7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

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